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안되고 되는 모든 것 자신이 쥐고 있어

젊은 청년들이나 앞날에 있어서 귀중하게 나날을 보낸다면 삶의 보람을 가져올 것이고 이 도리를 모르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너는 부자로 살아가라 또는 가난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정해 놓은 예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의 생각이 관습에 의해서 매달리고 끌어잡고 애쓰고 풀이간다면 그게 바로 운명이고 팔자인 것입니다. 팔자운명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모두가 생각하기에 달린 거죠. 그러나 팔자운명에 매달리지 말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주인 없는 빈집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각 자원과 본원의 앞날에 기쁨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주천지를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주천지라 하나가 여러분은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빛보다 더 빠르며,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만큼 그렇게 관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깝게 제각각을 가지고 있으니깐 우습게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마음이라는 것이 죽고 살리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담당하고 있고요. 내세에 다시 뒤바뀌어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그렇게 관대무변한 묘법인 것을 우리는 몰라서는 아니됩니다.

왜 우주와 더불어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었느냐. 부처님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공생·공심·공용·공체 공심화 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율레로부터 내 아님이 없느냐, 부처님 마음에서 태어난 천백억 화신은 바로 응신으로 화해서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별레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집승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나타서 응신으로서 응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내 아님이 없고, 내 아들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닥치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름이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그런 능력과 더불어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실천 해 볼 때 소소한 것을 가지고 뭐 안된다 된다면 이런 거에서 그만 매달리고 말죠. 그러나 안되고 되는 것은 다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안되고 되는 것을 다 내 손아귀에 쥐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기 자신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뜻은 움켜쥐고 마음내는 것과 근본, 이 세 가지가 한데 합쳐서 여러분 개개인이 돌아가는 것을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요 모두가. 여러분이 다 부처님이시듯. 그러면 안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거나 밖에서도 더불어 같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에는 천차만별의 의식들의 생명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 개체 하나가 세계와 같다 이겁니다. 이 개체, 몸 하나가, 이 몸 속에서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경이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 한 공장

주인공에 모든 것을 관하십시오 아프면 약사 괴로우면 관세음 명 짧으면 칠성으로 나뉘 쥐요

이 만약에 부도가 났다 이리한다면 사람의 몸, 즉 집 자체가 쓰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몸통이 자체가 나 혼자만이 사는 내 것인가. 아니요?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요? 그렇게 쉬지않고 돌아가면서도 고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름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수억억 전부터 진화해서 온 자기 욕심 속을 들여다 본다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인과로 인해서 바로 자기한테 인연이 돼서, 자기 영혼 근본과 더불어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어서 같이 해 아님이 이게 한 개체의 영아기가 되니까요.

금의 컴퓨터와 같은 거죠.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입력된 그대로 나오는 것을 흔하듯 팔자운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팔자운명이 없다 이런 거죠. 나오는데로 거기다가 되 입력을 하니깐 앞의 입력이 없었으므로 팔자운명이 붙을 자리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진짜 이런 공부는 천년에 한번 만나기가 어려운 공부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런 실천을 하면서 갈 수 있느냐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 소리를 안하면 안 되겠기에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내 마음을 따라줘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주가 별성을 수없이 낳듯이, 블랙홀이 수많은 겁대기는 버리고 알맹이 근본만 들여다 다시 생산을 시키듯이, 우리 인간은 이 마음 자체가 더불어 같이 사는 이 개체의 의식들을 다 내가 마음을 내는데로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내가 마음만 제대로 거기가 나오는데도 되놓을 수 있거든요. 그 또한 따라서 해아릴 수 없는 그 의식이 따라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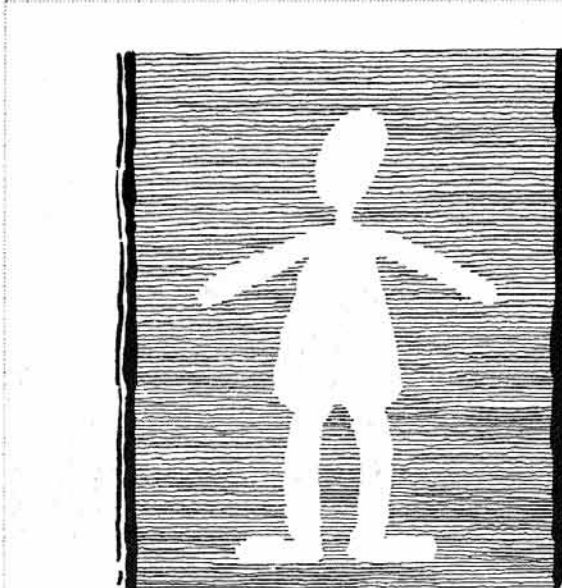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예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죠. 나라가 쇠퇴해서 망하게 되니까 싸움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거는 방편상 얘기하는 겁니다. 싸우는데 부처님 경계에는 급할 때에만 쓰는 거지 급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은 '이원대법'이지만 예전에는 '이보경계'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한마음 속에 들은 그 의식들과 더불어 안에서는 안에 대로 급하니깐 그 의식들을 내보내서 군사한테 전부 투입한 겁니다. 이해가 가요? 마음은 내가 없는 거라 영애다가 영을 넣어두 드드러지지 않죠? 그래서 이원대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능력이 몇배로 솟아나죠. 이원대법이라는 것은 그 이차적으로 거기다 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싸우는데 군사는 적고 그러니깐 저쪽에서 무얼 넣느냐 하면 안이한 마음을 투입 했던 말입니다. 또 적으면 적으면대로 지면 나무 이파리도 군사로 만들어 썼거든요. 말로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면 왜 별성이 못되고 태양이 못되겠소? 우주가 못되겠소? 블랙홀이 못되겠소? 다른 흑성이 못되겠소? 날아다니는 새도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앗이라' 하면

은 얇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도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망하게 하려면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려면 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도리예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배우는 사람은 항상 남을 이익하게 내 몸과 같이 이익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자기 원한심을 품고 나쁜 마음으로 툭툭 건드리면 손오공 밖에는 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살아나는 문제를 그냥 허탕하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데는 중세계예요. 승진을 하느냐 좌천을 하느냐 문제가 달린 중세계예요. 그럼 하세계는 따로 있느냐? 그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보죠? 육식동물이나 채식동물이 살면서 서로 잡아먹고 하는 게 보시죠? 그것이 하세계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사는데가 중세계라면 그럼 또 상세계는 뭐냐? 상세계는 마음으로 자유자재할 수 있고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상세계예요. 이 후성에 중세계만 있는 건 줄 알지 마세요.

우리가 참 차원이 그만큼 올라간다면 하세계나 상세계에 다 접근할 수가 있고 이심전심으로써 통신할 수가 있죠. 그건 왜냐?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거든요.

우주의 생명, 하세계의 생명들이 전부 중세계의 생명들과 같이 이심전심으로 통하게끔 다 이렇게 중심에는 가설이 돼 있었어요. 딱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근본끼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남을 아무리 속여도 나는 내가 못속인다는 말이 있죠. 내가 나를 못속이듯이 그렇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마음 공부를 할 때에 심사숙고하게 정신 바짝 차려서 해라 이 소립니다. 왜? 못 믿어 봤자야. 자기를 자기가 썩어먹는 거와 같고 무시하는 거와 같으니깐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없거든요. 이 도리를 원천히 알아야만이 서로 한마음으로 통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는 그때는 누가 뭐랄까? 참 대장부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도 남는 주먹을 쥌 수도 있죠.

그러니 맹세코 자기 뿌리는 자기가 믿어야 하고 또 항상 그대로 믿고 잘했으면 '감사하구나' 하고 잘못되는 거는 '잘못되게 하는 것도 그놈이니까 잘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하고 거기다가 굴러서 보라 이거야. 굴러서, 가정에서 심부름을 시킬때도 '애 아무개야! 똥, 똥을 사가지고 오너라', 이래야만이 사가지고 오는 거지, '아무개야 너 알아서 해!' 이런다면은 무엇을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 육신과 마음의 부처가 붙어 아니에요.

지난 번에도 얘기했듯이 콩씨를 심었더니 콩씨가 화해서 없어지고 콩씨으로 화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화두를 가지고 그 과거의 콩씨를 찾으니 어디가 찾아요? 그 콩씨가 썩어 되버렸는데 어디 가서 콩씨를 찾느냐구요. 썩어 있는 데서 콩이 또 달리는 법이지 어디서 콩을 찾아요? 그거는 백년, 천년, 만년이 가도 못찾아요. 자기가 썩으로 돼 있으니까. 그 콩이 화해버렸으니깐, 그러니 그 콩씨가 화한 것을 알고 무조건 그냥 콩씨를 화한 콩씨를 먹고 먹어치워라 이 소리예요. 자기한테 붙어있는 거거든.

예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수박을 들고 이게 뭐요? 이게 뭐요? 그러고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보니까 자기 짧은 세월이 다 잦단 얘기예요. '수박을 들고' 라고 하는 건 '화두를 들고' 라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아, 그런데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자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못 잘라 먹어보느냐 이거야. 그냥 먹어치워라 이거야 그냥! 먹어보면 그 속에 씨도 없고, 맛이 어떤 것도 알 수 있고 그렇기 아니냐 이거야. 내가 맛을 보고, 내가 그 씨가 있어서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씨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종자로 인해서 그런 세계가 나오게 되니까, 그게 알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요? 하고 백날을 가지고 굴려도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철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왕눈이 스님

서산대사의 법통을 이어 한국불교의 도도한 흐름을 계승시킨 권양 언기스님의 생애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강력으로서, 선승으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어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스님이 언기스님의 법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이웃' 화두를 들고 살았기에 '이웃' 스님으로 불리워졌으며, 양을 치면서 수행한 일,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던 일 등은 수행과 중생교화에 전념했던 스님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일기본 글: 조성민 그림/각 6,000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재미있는 불교만화

화엄경 (전10권)

부처님 설법의 정수로 꼽히는 화엄경. 그러나 화엄경은 그 분량의 방대함과 내용의 난해함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만화는 어린 선재동자가 구도여행을 하며 53명의 덕 높은 스승들을 만나 진리의 세계에 눈을 떠가는 이야기를 통해 화엄경의 진수를 쉽고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일기본 글: 조성민 그림/전 10권/각 권 5,000원

성철 큰스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철저한 수행과 경건으로 일생을 일관하여, 참다운 한국불교를 개척하였던 성철 큰스님. 20세기 한국불교 최고의 선승으로 추앙 받는 성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일기본 글: 조성민 그림/각 6,000원

백야심경

대승불교의 핵심은 '공(空)' 사상이다. 그런 만큼 '공'을 이해하면 불교를 다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만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공' 사상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려 나가고 있다.

일기본 편역: 남코희 그림/각 6,000원

불타석가모니 (전3권)

제1권 출가, 제2권 성도, 제3권 전법
 부처님께서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태어나 위없는 큰 도를 이루시고 45년간 그 깨달음을 퍼신 과정에서 가장 요긴한 점들을 모아 재미있게 엮고 있다.

일기본 글: 조성민 그림/각 권 6,000원

백유경

부처님의 설법은 문학의 보물창고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비유와 교훈들로 가득차 있다. 특히 백유경은 그러한 이야기들만을 모은 것이다. 만화 백유경은 웃으며 보다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를 얻는 재미와 교훈을 담은 100가지 비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기본 편역: 남코희 그림/각 6,000원